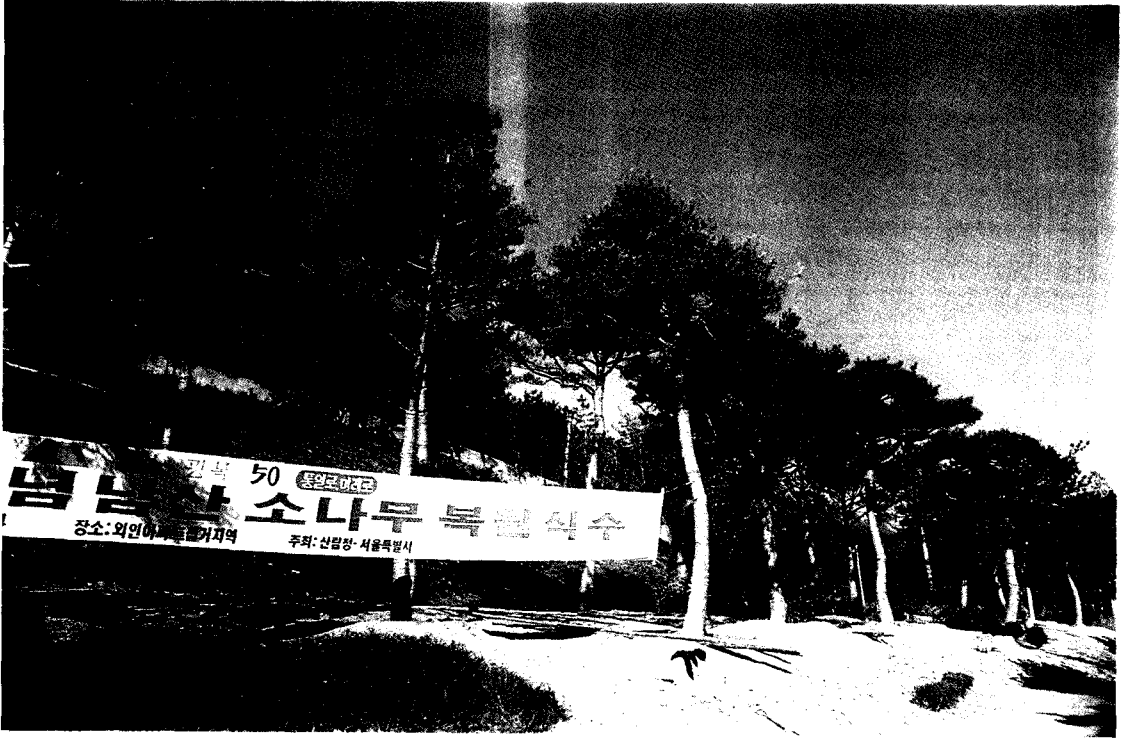


- 남산소나무 복원식재 -



▲남산소나무 복원 식재지의 광경. 1995. 11. 4.

지난 11월 4일 육림의 날을 기념하여 남산 동남쪽 산기슭 평탄한 곳에 오래된 큰 소나무 수십 그루가 심어졌다. 이들 소나무는 전국 각 도, 그리고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각 시에서 각각 5그루씩 보내온 것이다.

산림청은 금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3가지 큰 행사를 치렀다. 무궁화 큰잔치, 휴전선지구 생태계조사, 그리고 남산 소나무

복원식재가 그것이다. 남산은 옛적부터 소나무가 울울창창하게 서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고 우리의 수도 서울의 정기를 길러왔다.

서울에 사람이 살기 시작해서부터 그들은 한결같이 남산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기에 남산은 고향을 상징하는 뚜렷한 윤곽이었고 색깔이었고 자연의 요소였다.

1394년 10월 서울이 조선왕조의 수도로 되면서 남산은 내사산

(內四山) 중 서울의 안산(案山)으로서 해발고 265m의 잔구(殘丘)이지만 동서방향으로 약 2.7km, 남북방향으로 약 2.1km의 거리에 이른다. 이곳에는 각종 수목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의 푸른 섬이라고 할 수 있다.

약 1000년전 고려시대의 기록에 이미 서울 남산의 소나무의 별목을 금한 일이 있고 약 600년전 조선조 태종 때에는 남산에 많은

소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 남산의 소나무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시달림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나라에서는 서울 남산 소나무 보호의 지시를 내리고 있고 그에 대한 벌칙 또한 엄한 바 있었다.

동국여지승람의 남산팔영(南山八詠) 중 영상장송(嶺上長松)이 있는데 남산 위에 솟아난 소나무의 절경을 힘주어 노래한 것이다. 백야정월사청벽(白夜靜月籀淸壁)이라 해서 달 밝은 밤 고요히 소나무는 달빛을 채질해서 땅 위에 맑은 옥돌을 뿌리고 있다는 표현인데 소나무와 둥근 달이 짝지어 연출해 내는 남산의 야경(夜景)의 절경이다. 취개노송(翠蓋老松, 푸른 수관으로 덮인 노송들)이 남산의 대표적 경관으로 되었다고 짐작된다.

이날 식재된 소나무를 보면 강

원도의 것은 수고가 10m를 넘고 흉고직경 30-40cm, 지하고(枝下高) 7-8m의 협관성(狹冠性)의 것이었다. 제주도에서는 해송 5그루를 보내왔고 부산광역시는 수고 2-2.5m, 지하고 1.5m 쯤 되는 수관발달이 왕성한 특징 있는 나무를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지하고 3-4m 쯤 되고 역시 수관발달이 강한 나무를 보내왔다. 모두들 이 소나무들이 잘 살아 붙기를 기원하면서 뿌리를 흙으로 덮었다. 아름다운 남산 소나무의 경관을 만들어 줄 것을 또한 간절히 기원해 보았다.

이 술밭 가장자리에 길이 약 370cm, 높이 약 190cm 크기의 화강암의 면을 다듬어 『화합과 번영의 솔 숲』이란 석비를 세워 이 역사적인 행사를 오래도록 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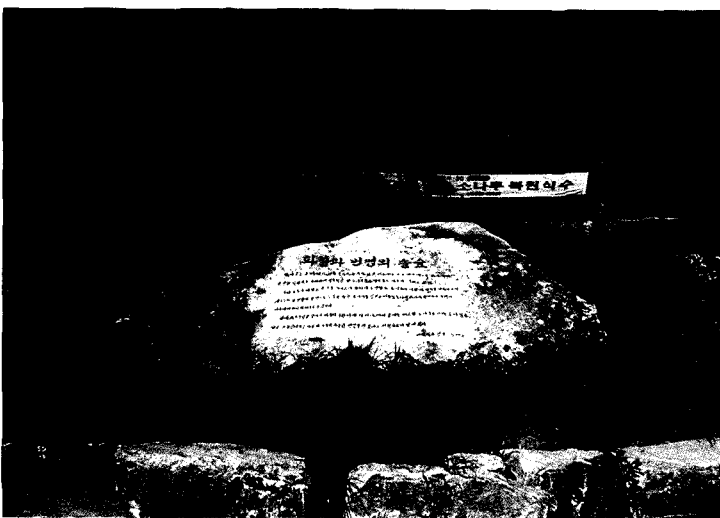
이 기념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

으며 글귀를 만드는데 필자도 참여하였다.

『소나무는 그 자체가 사철 푸르고 품위가 있어 예로부터 보는 이의 애호를 받아왔으며 남산을 청청하고 수려하게 물들였던 옛 소나무 숲은 선인들도 다투어 기리고 읊었다. 우리 모두가 아끼는 남산을 가꾸고자 일찌기 조선왕조 초기부터 이 산의 벌목을 금하였으며 태종조에 삼천명의 장정으로 스무날 동안 소나무를 심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힘썼으나 노력이 지속되지 못하여 제 모습을 잃었다. 광복 五十주년을 맞아 정부의 주관 아래 각 시도에서 보내온 제 고장 소나무를 한데 모아 심는 뜻은 온 국민의 굳은 화합과 국운의 무궁한 번영을 상징하고 기원하고자 함에 있다.』

一九九五年 十一月 四日

남산의 소나무는 그들 나무에서 종자를 따서 길러낸 후손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순수생물학적인 풀이도 있겠으나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온 국민의 정성을 모았는데 더 큰 비중을 주어 본 것이다.



▲남산소나무 복원 식재지에 세운 '화합과 번영의 솔 숲'의 석비. 1995. 11. 4.